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557
----------	------

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 : 한정애 · 정희용 · 김성희
추미애 · 맹성규 · 한병도
이기현 · 이소영 · 이재강
임오경 · 이학영 · 김용태
조정식 · 서왕진 · 박홍배
박 정 · 정혜경 · 위성락
염태영 · 김소희 · 한지아
진선미 · 강선우 · 권향엽
한창민 · 송옥주 · 이연희
박지혜 · 허성무 · 서범수
안호영 의원(3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탈석탄과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응을 엄중히 인식하며,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능동적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핵심 의제인 탈석탄

을 포함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에 관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 사항을 주목하며, 국내 여건을 고려하고 전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UNEA)의 결의안을 환영하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한다. 특히,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국가 기후환경 외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탈석탄을 포함한 탈화석연료의 국제적 논의 강화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 등, 관련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력과 산업 그리고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고 새로운 국가 전략 마련과 선제적 대응,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범국민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 마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손실 및 피해에 따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협정의 목표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마련하였고,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종합보고서(SYR)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그리고 2035년까지 60% 감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당위성을 강조함.

이러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 9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석탄 사용이 2050년까지 90% 감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특히 전력부문에서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식하고 그 외 국가들에서는 2040년까지 전력부문의 탄소중립 필요성을 강조함.

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이 명기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결정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탈석탄을 포함한 탈화석연료에 관하여 국제적 논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탈탄소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며, 2030년대 전반기 또는 1.5℃ 상승 제한이 가능한 시기에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 향후 G20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탈석탄은 핵심 의제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대응책과 전략 마련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의 오염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마련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오는 11월 관련 협약 마련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 기후환경 외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화석연료 문제에 관한 전 지구적 논의 동향을 엄중히 인식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선제적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력과 산업 그리고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고 관련 법적 제도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도적 기후행동 국가로 거듭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대한민국 국회의 사명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